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클락 공항에서 한 시간 버스를 타고 가면 후미진 산골에 학교가 나옵니다. 2018년 여름 산사태로 겨울에 갔을 때 아직 공사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길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대학교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산골 그 자체입니다. 새벽에 귀뚜라미 우는 소리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전반적으로 작다고 느껴지는 크기고 수영장이 있어서 원할 때 수영할 수 있습니다.
수업	수업은 총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하며 5시에 끝납니다. 단어, 읽기, 토익 스피킹과 영상 만드는 MMC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수업은 선생님과 계속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룹 수업은 레벨 테스트를 치고 일정한 인원수로 나뉘어서 그 사람들 끼리 어학연수 기간 동안 수업도 같이 듣고 프로젝트도 같이 하게 됩니다. 수업은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으나 MMC 프로젝트는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준비 기간도 너무 짧았고 시설이 좋지 않아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Activity	매 주마다 하는 활동을 정해 오후에 액티비티를 진행합니다. 저는 총 4가지의 액티비티가 있었습니다. 액티비티는 선생님들과 같이 어학연수를 온 학생들이 친해지는데 초점을 둡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 같이 웃이나 악세서리를 맞춰입는 날을 가집니다. 이때 학교에 포토존도 만들어지고 선생님들과 다 같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겨울은 건기라 비가 오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번 필리핀에 태풍이 와서 그 때 이틀간만 비가 조금 오고 날씨는 맑고 좋았습니다.
안전	점호가 위험하기 전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놓을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가게마다 경찰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딱 하나 생각나는 것은 택시 아저씨들이 억지로 태울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그냥 영어 못하시더라고 소리치면서 안탄다고 외치세요 그럼 다른 분들이 도와주십니다.
숙소	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기숙사 시설은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 왔을 때 정말 충격 그 자체 였습니다. 또한 비오는 날에는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으며 끝방에는 평소에도 잘 되지 않습니다. 숙소에는 개미와 바퀴벌레의 소굴입니다. 퇴치제를 꼭 들고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마뱀과 귀뚜라미는 가끔 보실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선생님이나 가드분을 불러 잡아달라고 하세요
식사	학교식당(v)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학교 식당에서 밥을 주는데 그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튜브형 고추장이나 김자반 꼭 들고오세요. 그럼 밥 굶은 일은 없습니다.
교통	교통이 생각보다 정말 불편합니다. FB라고 버스와 유사한 교통편이 있는데 오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시내에서 학교로 갈 때는 사람이 다 타야지 출발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가는 시간이 지체된 적도 많고 나가기 전에 힘을 뺏적이 많습니다. 또한 택시는 기본적으로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120~150페소면 시내까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택시기사들이 기본 200페소를 부릅니다. 그럴 때는 그 값에 절대 타지 마시고 흥정하셔서 150까지 내려서 가세요.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74,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500,000원	
선물&기념품	200,000원	아껴쓴다면 필요 없는 돈
합계	1,440,000 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자신이 평소에 밥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꼭 고추장이나 고추참치등 한국의 맛을 챙겨가세요. 또한 건기든 우기는 비는 꼭 오니 미니 우산도 챙겨가시구 필리핀에서 생필품을 산다고 생각 하더라도 첫날에는 쓸 것이 없기 때문에 챙겨가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벌레퇴치제랑 상비약은 꼭 챙겨가세요.

옷은 그렇게 많이 챙겨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캐리어 절반은 비워가도 선물이나 필리핀에서 산 것들 때문에 다 채워져서 초과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캐리어 절반은 비워가시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선물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싼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말랑카우나 누룽지 사탕 등 소박한 것들 챙겨가시고 선생님들은 수업해주시는 선생님 7분 담임선생님 2분으로 총 9분입니다. '나는 선생님 선물 안줄 거야'라고 생각하셔도 마지막 쯤에는 다들 챙기게 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4주 동안 꿈을 꾸 기분입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기회로 학교에서 가게 되었는데 이 때가 아님 절대 만들지 못하는 추억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약 다음에도 필리핀 어학원을 가게 될 수 있다면 주저말고 가고 싶을 정도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수기를 보는 여러 순천향 학우분 들도 잊지못 할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요트 투어



리조트 투어



크리스마스&홀리데이 풍경



학교 수영장



졸업식 때 그룹 단체사진



선생님들과 마지막 수업 때